

‘천사의 섬’ 신안의 자연·문화 다룬 ‘인문지리서’

신안
강재운 지음

김대중 전 대통령, 바둑기사 이세돌, 화가 김환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신안 이 낯은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한국 최초 세계 3대 영화제 수상 감독인 장대진 고향도 이곳이다.

세계적인 인물만 배출한 것이 아니라 자연 경관 또한 빼어난 곳이 적지 않은데, 그 가운데 기암괴석이 빼어난 섬 흥도를 빼놓을 수 없다.

102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의 왕국인 신안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20여 년간 한국의 섬 약 400여 개를 답사한 강재운 시인(섬연구소 소장)이 이번

에 발간한 ‘신안’ (21세기 북스)은 신안을 조망한 인문지리서다. 보길도가 태자리인

탓에 ‘보길도 시인’으로 불리는 저자는 지난해까지 광주일보 자매지 ‘예향’에 ‘남도 섬과 토속음식’을 연재했다. 지금까지 ‘전라도 섬맛기행’, ‘섬 택리지’, ‘걷고 싶은 우리 섬’ 등을 펴낸 데서 보듯 섬들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데 주력해왔다.

“신안군의 육지 면적은 서울특별시보다 크다. 바다를 포함하면 신안군의 영역은 서울의 22배나 된다. 그 넓은 영역에서 독립된 섬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한다. 신안에 사는 사람도 그저 자기 섬 주변, 신



신안

안의 일부를 살 뿐이다. 신안을 자주 여행한 사람도 신안의 극히 일부를 여행했을 뿐이다. 그러니 누가 신안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신안 여행이 신안에 대한 공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다.”

시인이 책을 펴내게 된 이유다. 책에는 333년 항쟁의 역사가 서린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를 비롯해 호남 천일염의 시작 비금도, 흥어와 자산어보의 섬 흑산도, 중국의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국경의 섬 가거도 등 모두 25개의 섬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의도 피섬 마을 앞바다에는 작은 무인도가 있다. 주민들이 사자바위라 부르는데 이 섬은 사람 옆모습과 흡사하다. 전량 대에는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마지막으 고향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 전시돼 있다. 무인도에는 애뜻한 전설이 내려온다.

오랜 옛날, 피섬마을 뒷산에 고승이 암자를 짓고 사자를 지르며 수도생활을 했다. 어느 날 큰 범이 출몰해 가족과 사람을 해치자, 스님과 사자와 청년들이 합하여 싸웠다. 결국 많은 이들은 물론 스님과 사자도 부상을 입고 죽고 만다.

이후 사천왕이 내려와 스님과 사자를



흑산도 서리마을 사촌 서당은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전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지은 것으로, 이곳은 또한 ‘자산어보’의 산실 역할을 했다. (21세기북스 제공)

섬에 안치하라는 부처님의 명을 받고 왔으며 두 사체를 안고 사라져버린다. 그때 하늘에서 ‘때가 되면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사람 형상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그 얼굴을 큰 바위 얼굴이라 불렀고, 그 예언의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믿고 있었다.

이밖에 책에는 물 반 고기 반이었던 서해의 해금교 다물도, 툰립 축제가 열리는 한국 속 네덜란드 입자도, 자연 생태의 보고 람사르습지로 유명한 장도 등도 소개돼 있다. 원조 섬초를 키우는 시금치밭으로 잘 알려진 수지도와 섬 속해 펼쳐진 사막의 형상이 아름다운 우이도의 풍광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단순한 여행안내가 아닌 섬의 애잔한 속살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풍경과 섬 살이, 지켜져야 할 소중한 이야기까지 발로 뛰며 담아낸 기록은 현장감을 전해준다. 신안 사람들의 특별한 풍경과 이야기 그리고 맛과 멋은 신안을 ‘이야기의 제국’이라 해도 손색이 없게 한다.

저자는 “신안은 이 나라 국토의 끝자락이다. 하지만 땅의 끝은 결코 끝이 아니다. 바다의 시작이다”며 “신안이야말로 세계로 향하는 대문이고 통로다”고 말한다. (21세기북스·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보고 토론할 만한 다양한 책과 영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기존의 틀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역량을 배워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리는 배움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공리·1만5000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신경정신과 의사인 이시형과 심리 상담가인 박상미가 마음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인 상담 기법인 ‘의미치료’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의미치료’는 ‘로고 테라피(Logotherapy)’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독자들이 자신과 가족, 타인의 마음 관리에 의미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

〈특별한서재·1만6000원〉

▲밤 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귀농 14년 차 산골야박의 부엌 이야기를 담았다. 밥상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우리 안의 깊은 욕구를 47편의 이야기로 전한다. 이와함께 밥상을 차릴 때 유념해야 하는 ‘청라네 밥상 지침’ 일곱 가지도 실었다. 〈산티·1만5000원〉

▲더는 태울 수 없어서=1990년생 직장인 이재은의 베를린 생활기를 담은 에



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서른 살, 쫓기듯 사는 게 지겨워 무작정 한국을 떠나 베를린을 찾았다. 여행객이 아닌 현지인처럼 베를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스물일곱 쪽지의 글과 직접 찍은 50여 장의 사진으로 기록했다. 현직 기자다운 저자 특유의 생동감 있는 문체와 직접 찍은 사진들은 실제로 베를린 길거리를 거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위즈덤하우스·1만3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사자도 가끔은=항상 자신감 넘치고 멋져 보이는 사자가 우울에 빠진 이야기다. 커다란 사자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한숨을 내쉬며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고 아이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다 이내 평평 울어버린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해 낸 후 기운을 차린 사자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

〈길벗어린이·1만3000원〉

▲어린이날이 사라진다고? =제2회 다채로운 문학기공전 우수상 수상작이다. 어린이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독특한 시선에서 시작한 작품은 어린이날을 없애자는 악당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은찬이와 어린이 슈퍼 영웅들, 숲속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어린이날이 왜 소중한지, 어린이날을 왜 지켜 나가야 하는지 등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땅콩은 방이 두 개다=40여년 간 ‘밭을 지으며’, ‘달은 아직 그 달이다’ 등을 펴내며 작품활동을 펼쳐온 시인 이상국의 첫 동시집이다. 어린 벗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 반달곰, 기러기 등 자연의 친구들과 같이 살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을 담았다. 온 세상을 활보하며 관찰하는 어린이의 시선은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들에 대한 사유와 반성을 더한다. ‘나의 고백’, ‘여우야 돌아와’, ‘땅콩방 친구 방나팔꽃’, ‘빼꾸기 전화’ 등 4개의 장과 48개의 시로 구성됐다. 〈창비·1만800원〉



물리학자가 본 예술, 타이포그래퍼가 본 과학

뉴턴의 아틀리에

김상욱·유지원 지음

이 책은 다른 책을 읽을 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읽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게 ‘글자체, 폰트’였다. 북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전적으로 책의 저자 덕이다. 유지원의 매력적인 전자 ‘글자 풍경’을 접한 이라면 이 책을 집어들 수밖에 없고, 어떤 글자체로 쓰여졌는지 자연스레 궁금해진다. ‘글자’에 대해, 지금껏 접한 적이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글자 풍경’은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유지원 타이포그래퍼가 ‘알쓸신잡 3’ 등에 출연하고 과학 대중서를 통해 독자들보다 친근한 물리학자 김상욱과 ‘뉴턴의 아틀리에:과학과 예술, 두 시선의 다양한 관계 맺기’를 펴냈다. 미술관에서 과학



물리학자가 본 예술, 타이포그래퍼가 본 과학

을 보는 물리학자와 과학에서 예술을 읽는 타이포그래퍼가 함께 쓴 ‘과학과 예술의 소통’에 대한 글이다.

두 사람은 각각의 주제에 대해 번갈아 이야기를 들려준다. ‘관계 맺고 연결된다는 것’, ‘현실을 관찰하고 사색하는 마음’, ‘인간과 공동체의 탐색’, ‘수학적이지 않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글자 풍경’은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과학과 예술은 그 환경이 되는 사회, 역사와도 무관치 않고 ‘살’으로 귀결됨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이다.

‘과학의 경이’가 대중에게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 물리학자로서 물리와 일상 언어를 어떻게든 화해시키고자 노력하는 다양한 물리학자’인 김상욱이 글을 풀어가는 소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현대미술이다.

그림에 대한 과학자의 시선은 새롭고도 흥미로워서 늘 보던 그림, 예를 들면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나 윌리엄 터너의 ‘눈보라’,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 추상미술의 대명사 잭슨 폴록의 작업 풍경이 색다르게 다가온다.

그는 음악을 ‘보여’ 주려한 칸딘스키의 추상작품은 파동과 양자역학으로, 녹아내리는 시계 이미지로 유명한 달리의 ‘기억의 지속’ 역시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며 초현실주의와 양자역학이 동시대의 산물임을 이야기한다.

유지원은 글자와 다양한 예술장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물리학과 수학의 시각

으로 바라본 글자 이야기를 풀어내간다. 유머감각이 갖는 글자체에 대한 이야기나 물리학의 수식으로 보는 타이포그래피 이야기는 신선하다.

책은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작과 달리 표지와 본문 디자인을 직접 맡은 유지원은 자신의 글과 김상욱의 글을 각각 다른 폰트로 담았다. 그래서 책 내용을 읽다가 수시로 ‘글자 모양’을 한 번쯤 살펴보게된다. 편집진은 책을 읽으며 궁금해지는 도판과 관련 자료들을 풍성하게 실어 이해를 돕는다.

이러려 전 문화부장관이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처럼 공통된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경이롭다’는 추천사를 썼는데 ‘뜻밖의 연결’이 만들어낸 독특한 시선과 만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책을 읽고 나면 ‘글자 풍경’을 다시 한번 꺼내 읽고 싶게 만들고, 과학은 나에게 여전히 어렵고 취향이 아니지만, 한번쯤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해준다. 〈민음사·1만9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